

사람들이 커피를 음료의 일종으로 생각하며 별 의미 없이 마시지만, ‘낭만적인 체험요소’를 가미해서 이탈리아 원조 카페 분위기를 조성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게 스타벅스 아니니.

어린이들은 종이든 나무토막이든 아무거나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게 본능인 것 같아. 그러니 플라스틱을 끼워 맞춰가며 ‘자기 상상대로’ 만들어보게 하면 어떨까? 그게 레고지.

소주 만드는 곳이 많았지만, 안심하고 맛있게 즐길 소주는 많지 않았어.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믿을 만한 소주를 만들어볼까 해서 나온 게, 진로 아닐까?

이렇듯 모든 일에는 어미, 즉 초심이 있어.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잊곤 하지.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것 아닐까? “You always have to get back to the core value.” 한참 뛰어가다 보면 어미를 잃어버리는데, 언제든 핵심 가치를 잊지 말고 찾아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겠지.

자네 소주 역사에 대해 좀 아나? ‘소주’ 하면 어쨌든 오랫동안 ‘진로’였잖아. 이게 희석식에 알코올 함량이 20도가 넘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국민술로 자리매김했지.

그런데 두산 경월이 활성탄으로 맛을 순화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조한 그린소주를 탄생시켜. 여기에 꿀이 첨가된 고급스러운 검은 라벨의 김삿갓이 가세해. 진로 가격의 두 배나 되었지만, 목 넘김이 좋고 건강에 덜 해로울 것 같아서 대번에 인기를 끌었어.

그러자 이에 반격하고자 진로는 오크통에 몇 개월간 저장해 ‘숙성된 맛’을 강조한 참나무통맑은소주, 일명 ‘참통’을 내놓아. 참통은 성공을 거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로의 고유 시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다시 말해 제 살 깎아 먹기(cannibalization)가 된 거야.

그래서 진로가 정신 차리고 어미를 찾았지. 처음에 왜 ‘진로’라고 이름 지었지?

소주를 증류할 때 술방울이 이슬처럼 맺힌다고 해서 ‘참 진(眞), 이슬 로(露)’잖아. 진로가 왜 진로인지 어미로 돌아가 보니, 참이슬이야. 그러니까 소주를 먹는 게 아니라 이슬을 마시